

간호대학생의 인성 및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융합연구

임재란, 김순영*
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Convergence Study on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and Stress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ae-Ran Lim, Soon-Young Kim*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성, 스트레스,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D광역시 간호학과 193명을 대상으로 2017년 12월 14일부터 2017년 12월 19일까지 설문 조사를 하였다. 자료 분석은 t-test, one-way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다중선형회귀분석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전공만족도 평균 6.32 ± 2.03 점, 인성 평균 $3.76 \pm .43$ 점, 스트레스 평균 $1.57 \pm .37$ 점, 대학생활 적응 평균 $3.30 \pm .65$ 점이었었다. 대학생활 적응은 전공만족도($r = .42, p < .001$)와 인성($r = .61, p < .001$)과 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스트레스($r = -.33, p < .001$)와는 역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담횟수, 전공만족도, 인성이었으며,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49%이었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인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전공만족도, 인성, 스트레스, 대학생활 적응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college adjustment. The data collected from December 14, 2017 to December 19, 2017, and the questionnaire from 193 nursing students in D City.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one-way ANOVA and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ean scores of major satisfaction, was 6.32 ± 2.03 , personality was $3.76 \pm .43$, stress was $1.57 \pm .37$, and college adjustment was $3.30 \pm .65$.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college adjustment and major satisfaction($r = .41, p < .001$), as well as between personality ($r = .60, p < .001$). Th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the college adjustment were number of consultation, major satisfaction and personality, which explained 49% of the variance in the college adjustment. Based on these findings, programs that develop personality are necessary for college nursing students in order to promote college adjustment.

Key Words : Nursing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Personality, Stress, College Adjustmen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주로 대학입시를 목표로 하는 획일적이고 수동적인 생활에 익숙해 있다가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노출되고 자율적인 대학생활을 경험하기 시작함에 따라 대학생활에 적응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1]. 대학생활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진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며 직업의 선택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있어 대학생활 적응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2-4]. 한국교육개발원(2012)에 따르면 재학생 10명 중 3명은 휴학상태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휴학이외에 경기불황이나 취업난향, 또는 심리적 부적응, 성적 부진 등 대학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5].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기효능감[6,7], 자아존중감[6,8], 자아탄력성[8-10], 사회적 지지[5,8], 스트레스 대처양상[10-12], 대인관계[13], 진로태도성숙도[14,15]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인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간호현장에서도 인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6]. 간호에서 인성이란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품성으로[17], 인간존중의 정신과 태도, 타인존중, 배려, 예절, 성실함 등의 기본적인 자질과 품성이 요구된다[18]. 간호대학생의 인성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인성 분석[19], 인성교육의 필요성[17], 인성중요도와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20], 인성교육 요구도 분석[21], 인성 관련요인[22] 등에 대한 조사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23-25]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인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인성은 대학생활 적응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13,16,26].

인성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것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이전에 대학에서는 간호학생들의 대학생활 중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고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전문간호사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16,17].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26].

간호학은 전공 특성상 임상실습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또한 과중한 학습량과 국가고시에 대한 부담감, 취업을 위한 학점관리 등으로 인해 간호대 학생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학과 적응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4,6,12,13]. 그러나 최근에는 심각한 취업난으로 인해 적성과 전공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취업률이 높은 간호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3, 12]. 커리큘럼에 대한 이해 없이 입학한 학생들이 학과 내에서 겪게 되는 적성의 불일치는 더욱 큰 혼란을 가중시켜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결과가 생기기도 한다[14]. 학점이수, 시간관리, 인간관계,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고민 등 대학생활 중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잠재적인 스트레스원이 될 수 있으며[3], 이는 간호대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학업스트레스와[7,27,28]와 임상실습 스트레스[6,28-30]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며, 학업스트레스[7]와 임상스트레스[8]가 낮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학업, 경제, 대인관계, 장애 등의 관련 스트레스를 포괄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검토와 대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31].

이에 간호학과 학생들의 인성과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성, 스트레스 및 대학생활 적응의 정도를 파악한다.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과 전공만족도, 인성,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과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시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2017년 12월 14일부터 2017년 12월 19일까지 D광역시에 소재한 1개 대학의 간호학과 1~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 전 대학소속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승인을 받았다(1041490-201707-HR-001). 대상자 수는 G*POWER 3.1.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alpha=.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독립변수(일반적 특성, 인성, 스트레스) 11개일 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총 178명의 표본수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32]. 이를 근거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미흡한 7부를 제외한 나머지 193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나이, 학년, 종교유무, 주거형태, 경제수준, 학기당 상담횟수, 간호학에 대한 전공만족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전공만족도는 0점에서 10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2.2.2 인성

교육개발원(2014)의 KEDI인성 검사지를 Kim[33]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Likert식 5점 척도로 인성검사지는 10개의 인성 덕목(자기존중, 성실, 배려, 소통, 사회적 책임, 예의, 자기조절, 정직·용기, 지혜, 정의, 시민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3$ 이었다.

2.2.3 스트레스

Chon(2000) 등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34]. Likert식 4점 척도로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가지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각 요인은 경제 문제 7문항, 이성과의 관계 6문항, 교수와의 관계 6문항, 가족과의 관계 7문항, 장래 문제 7문항, 가치관 문제 5문항, 학업 문제 7문항, 친구와의 관계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5\sim.88$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6$ 이었다.

2.2.4 대학생활 적응

Jeong과 Park(2009)이 개발한 대학적응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35]. Likert식 5점 척도로 대인관계 4문항, 학업활동 4문항, 진로준비 4문항, 개인 심리 4문항, 사회체험 3문항, 전체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0\sim.86$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4$ 이었다.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인성,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전공만족도, 인성, 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고,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하였다.

2.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 대학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에 나타난 분석 결과를 모든 간호학과에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는 모두 193명으로 나이는 24세 이하 77.2%(152명), 25-29세 16.6%(32명), 30세 이상 6.2%(12명) 이었으며, 1학년 25.4%(49명), 2학년 23.8%(46명), 3학년 24.9%(48명), 4학년 25.9%(50명) 이었다. 종교는 무 65.8%(127명), 유 34.2%(66명) 이었으며, 주거형태는 자취 54.4%(105명), 자택 31.1%(60명), 기숙사 등과 같은 기타 주거형태 14.5%(28명) 이었

다. 경제수준은 중 78.2%(151명), 하 16.6%(32명), 상 5.2%(10명) 순이었다. Table 1과 같이 학기당 지도교수와의 상담횟수는 1회 51.8%(100명), 2회 28.0%(54명), 3회 10.9%(21명), 0회 5.7%(11명), 4회 이상 3.6%(7명) 순이었다. 학과선택의 이유는 졸업 후 취업률이 높아서 37.0%(75명),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28.6%(58명), 부모님 혹은 선생님 권유 18.7%(38명) 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193)

Characteristics		n	%
Age	≤19	3	1.6
	20-24	149	75.6
	25-29	32	16.6
	≥30	12	6.2
Grade	1st	49	25.4
	2nd	46	23.8
	3rd	48	24.9
	4th	50	25.9
Religion	Yes	127	65.8
	No	66	34.2
Live	Home	60	31.1
	Live apart from family	105	54.4
	Others	28	14.5
Economic level	High	10	5.2
	Middle	151	78.2
	Low	32	16.6
Number of consultation (Per semester)	None	11	5.7
	1time	100	51.8
	2times	54	28.0
	3times	21	10.9
Motivation of admission (Multiple choice)	4times≤	7	3.6
	Score	23	11.3
	Recommendation of parent or teacher	38	18.7
	Employment guarantee	75	37.0
	Aptitude	58	28.6
Others	9	4.4	

3.2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인성, 스트레스, 대학생활 적응 정도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Table 2와 같이 평균 6.32±2.03점(척도범위: 0-10)이었고 인성 평균은 3.76±.43점(척도범위: 1-5) 이었다. 스트레스 평균은 1.57±.37점(척도범위: 1-4) 이었으며, 대학생활 적응 평균은 3.30± .65점(척도범위: 1-5)이었다.

Table 2. Subject's Major Satisfaction, Personality,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N=193)

Variable	M±SD
Major satisfaction	6.32±2.03
Personality	3.76±.43
Stress	1.57±.37
College adjustment	3.30±.65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생활 적응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생활 적응의 차이는 Table 3과 같이 나이(F=1.09, p=.338), 종교 유무(F=-.02, p=.982), 주거형태(F=.01, p=.988)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학년(F=10.50, p<.000), 경제수준(F=6.02, p=.003), 상담횟수(F=6.12, p=.003)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4학년이 1학년과 3학년 보다 대학생생활 적응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학년이 3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이 상인 집단이 중, 하 집단보다 대학생생활 적응 점수가 높았고, 상담 횟수가 학기당 2회 이상인 경우 0회, 1회인 경우 보다 대학생생활 적응 점수가 높았다.

Table 3. Differences in College Adjust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93)

Characteristics		M±SD	t/F(p) Scheffe
Age	≤24	3.33±.64	1.09 (.338)
	25-29	3.25±.65	
	30≤	3.06±.77	
Grade	1st ^a	3.16±.66	10.50 (<.001*) d>a,c b>c
	2nd ^b	3.46±.54	
	3rd ^c	2.99±.60	
	4th ^d	3.60±.61	
Religion	Yes	3.30±.65	-.02 (.982)
	No	3.30±.66	
Live	Home	3.29±.69	.01 (.988)
	Live apart from family	3.30±.64	
	Others	3.31±.61	
Economic level	High ^a	3.68±.77	6.02 (.003) a>b,c
	Middle ^b	3.34±.62	
	Low ^c	2.99±.65	
Number of consultation	None ^a	2.84±.37	6.12 (.003) c>a,b
	1time ^b	3.20±.66	
	2times≤ ^c	3.47±.63	

3.4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인성, 스트레스,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은 Table 4와 같이 전공만족도($r=.42, p<.001$)와 인성($r=.61, p<.001$)에서 순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스트레스($r=-.33, p<.001$)와는 역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4. Correlation of Major Satisfaction, Personality,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N=193)

Variable	Major satisf-action	Personality	Stress	College adjust-ment
Major satisfaction	1			
Personality	.29*	1		
Stress	-.25*	-.29*	1	
College adjustment	.42*	.61*	-.33*	1

* $p<.001$

3.5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공만족도, 인성, 스트레스와 일반적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학년, 경제수준, 상담횟수를 변수로 포함하여 다중선행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선행회귀분석에 포함된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4~1.20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결과는 2.17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와 같이 회귀분석 결과, 상담횟수, 전공만족도, 인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49%이었다($F=29.73, p<.00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College Adjustment

(N=193)

Variable	B	SE	β	t	p	VIF
(Constant)	.05	.46		.11	.916	
Grade	.04	.03	.73	1.35	.180	1.07
Personality	.73	.09	.48	8.31	<.001	1.20
Major satisfaction	.07	.02	.23	4.02	<.001	1.17
Number of consultation	.19	.06	.17	3.17	.002	1.04
Economic level	-.09	.08	-.06	-1.13	.260	1.12
Stress	-.19	.10	-.11	-1.92	.056	1.14

$R^2=.490, Adj. R^2=.490, F=29.73(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 인성 및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32 ± 2.03 점으로 보통 이상의 점수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의 학과선택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졸업 후 취업률이 높아서'와 '적성이 맞아서'에 응답한 응답률이 65% 이상으로 나타나 취업의 낮은 부담감과 간호학과에 대한 적성이 전공에 대한 만족도로 이어져 비교적 안정적인 학교생활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인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76 ± 0.43 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도구로 미용전공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연구에서는[33] 평균 3.55 ± 0.49 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인성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본 연구의 대상과 동일한 간호대학생의 인성을 측정된 선행연구에서는 4.42 ± 0.56 [13]로 본 연구결과 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상은 같지만 인성을 측정하는 평가 도구의 개발 당시 대상의 범위에 차이가 있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를 학업, 생활 등 대학을 다니면서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된 결과 4점 만점에 평균 1.57점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 [36,37]에서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을 제외하고 학업 및 환경 등을 포함하여 대학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측정된 결과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고, 일반 여자대학생의 스트레스를 간호대학생과 비교한 연구결과에서는 일반여자대학생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7]. 이와 같이 일반 대학생에 비해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가 낮은 이유는 타 전공 졸업생과 다르게 졸업 후 전문직으로 취업에 대한 막연함이 없고 다양한 실습환경을 접하여 학기간에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을 측정된 결과 5점 척도에 평균 3.30으로 나타났다.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11,13]와 다른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도 [38]로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고, 보건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대학생활 적응을 측정된 선행연구[39]에서도 평균 3.33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학년, 경제수준, 상담횟수, 전공만족도 이었다. 4학년이 가장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나 대학생활 적응을 다른 학년에 비해 잘하는 것으로 선행연구[38]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고, 3학년이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40]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결과 4학년 때 취업에 대한 진로가 결정되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로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 반면 3학년에서 대학생활적응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1, 2학년 동안은 학내에서 전공 수업과 실습이 이루어지나 3학년부터 임상이라는 낮은 환경에서 임상실습이 처음으로 이루어져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전공교과목의 과중한 공부량의 부담으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임상현장실습에 나가기 전에 임상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내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경제적 수준이 상인 대상이 중 및 하 집단에 비해 대학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2016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41]에 따르면 본 연구대상자의 94%에 해당하는 연령대인 만 19~29세 사이에 해당하는 연령 군에서 휴학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군입대를 제외하고 아르바이트와 경제적 이유로 나타나 경제적인 상태가 대학생활을 지속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제적 안정 여부에 따라 휴학 후 복학으로 다시 대학생활에 적응해야하는 상황으로 경제적 안정을 통해 대학생활에 전적으로 몰입할 수 있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상담횟수가 많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담은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42]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상담을 통해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도교수로부터 아낌없는 후원과 지지를 통해 대학생활을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그래서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특히 임상에 첫 실습을 시작하는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 보건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연구[39]와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연구[11]에서도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 적응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8,40]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고 대학생활적응과 인성과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 Sim과 Bang[1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여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진로에 대한 정보제공, 밀착진로지도, 멘토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상담횟수, 전공만족도와 인성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9%였다. 대학생활 적응에 인성이 회귀분석에서 회귀계수의 값이 가장 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규명되었다. 보건계열 대학생,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37,39]에서도 인성이 영향이 있다는 같은 연구 결과를 보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정규교육과정과 교과 외 과정에 인성함양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된 선행연구에서[43]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로 나타나 간호학과 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적용과 전공동아리 활성화 및 상담 등을 통해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 지역의 일개 대학 간호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결과의 확대해석에 제한점이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성 및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로 추가적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다양한 지역의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인성 및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담횟수, 전공만족도, 인성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중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인성이었다. 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사회의 변화에 따른 학생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본이 되는 가정에서부터 인성함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 자원을 통한 인성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학생을 지도할 때 주기적이고 심층적인 상담을 통

하여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준별 학습과 비교과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S. J. Lee & J. H. Yu. (2008).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and career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22(3), 589-607.
- [2] I. Y. Cho. (2014).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5), 2947-2945.
- [3] E. A. Kim & K. S. Jang. (2012).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2), 312-322.
- [4] E. J. Oh & S. A. Park. (2016).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between nursing student's adult attachment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8), 94-102.
- [5] J. U. Kim & J. H. Kim. (2013).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attachment,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9), 248-259.
- [6] S. J. Whang.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2), 205-213.
- [7] H. J. Jung & M. J. Chae. (2018).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academic stress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8), 403-417.
- [8] Y. K. Kwang. (2013).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5), 2178-2186.
- [9] M. S. Park, C. U. Oh & H. K. Kang. (2017). Relationships among bullying, ego-resilience, perceived stress, and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2), 73-81.
- [10] J. A. Park & E. K. Lee. (2011).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7(3), 267-276.
- [11] M. S. Ko. (2015). Ego-resili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Coping Strategies &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10), 280-291.
- [12] K. H. Kim. (2014). Correlation of stress-coping, humor, sense, and adaptation to college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3), 310-313.
- [13] S. S. Sim & M. R. Bang.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2), 634-642.
- [14] J. Y. Kim. (2015). *Factors associated with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Sungshin University, Seoul.
- [15] H. Y. Koo & H. S. Park. (2005).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its predictor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6(2), 373-385.
- [16] M. H. Lim. (2016). Effect of character, clin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8), 560-568.
- [17] J. H. Park. (2013). Need of character education in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5(6), 3321-3332.
- [18] M. H. Jeong. (2017). Effect of character,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elf-efficacy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9), 302-314.
- [19] M. R. Lee & Y. K. Kwang. (2017).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7), 491-499.
- [20] E. Y. Yeom & H. K. Moon. (2017).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importance of personal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12), 691-701.
- [21] S. M. Nam & J. S. Park. (2019). Needs analysis for character educa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5), 545-561.
- [22] M. R. Lee & Y. K. Kwang. (2017). Personality and the influencing factors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6), 427-437.
- [23] B. J. Kim & E. Y. Jeon. (2016). Exploration of development and applicability of a classics book reading program as character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10), 676-686.
- [24] M. R. Lee & M. H. Nam. (2018). The effects of character education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9), 553-562.

- [25] N. Y. Kim. (2018).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3), 345-363.
- [26] J. S. Kim & H. N. Kim. (2016). Effects of character,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resilience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nneagram Studies*, 13(2), 7-28.
- [27] J. W. Park & E. K. Lee. (2016). Effects of academic stress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femal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professor trus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7), 831-844.
- [28] H. S. Hong & H. Y. Kim. (2016). Effect of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resilience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2), 221-234.
- [29] S. A. Whang. (2019). The influence of clinical practice stress, ego-resilience, and peer group caring interaction on adaptations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6), 807-823.
- [30] J. W. Lee & Y. S. Eo. (2013). Effect of clinical stress and stress coping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7(2), 125-134.
- [31] H. G. Son, S. H. Kwon & H. J. Park. (2017). The influence of life stress, ego-resilience, and spiritual well-being o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5), 636-646.
- [32] F. Faul, E. Erdfelder, A. G. Lang, & A. Buchner.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pp.175 - 191.
- [33] H. R. Kim. (2015). *A Study on Differences in Adaptation to School Life Depending on Personality in Students Majoring in Cosmetology*.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34] K. K. Chon, K. H. Kim & J. S. Yi. (2000). Development of the 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5(2), 316-335.
- [35] E. I. Jeong & Y. H. Park.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adjustment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1(2), 69-92.
- [36] J. Y. Park. (2011). *Stress, stress response and influencing factors on resilience among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Seonam university, Namwon.
- [37] S. Y. Lim, K. M. Kwon, Y. K. Jeong & K. S. Han. (2010). Comparison to Stress, Depression and Self-efficacy between Nursing Student and the Other Major University Women Student.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18(2), 119-124.
- [38] H. J. Choi. (2017).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6), 68-77.
- [39] M. J. Jun & E. K. Noh. (2018). The Convergence Study effected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health-related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4), 433-442.
- [40] J. H. Oh. (2014).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0), 873-884.
- [41] K. H. Kim, H. S. Ha, I. C. Sin, J. O. Bae & W. B. Son. (2016). *2016 Youth Social and Economic Surve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16-R08-1.
- [42] H. K. Lee. (2007). The effect of experience related to the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on the career development and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8(4), 1501-1520.
- [43] S. O. Choi, J. K. Park & S. H. Kim. (2015). Factors Influencing the Adaptation to the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2), 182-189.

임 재 란(Jae-Ran Lim)

[성취]



- 2002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8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모자보건, 건강증진

· E-Mail : jrlim@hit.ac.kr

김 순 영(Soon-Young Kim)

[성취]



- 1997년 8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8년 8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지역보건, 여성건강간호

· E-Mail : syklim@hit.ac.kr